

# 인문 상경

## 2019학년도 신입학 전형 수시 모의논술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답안지와 문제지에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정답 외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마시오.
- 9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시오.
- 고사 종료 후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시오.
- 진행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시 퇴실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 펜(볼펜, 연필, 샤프)으로만 작성하시오.  
(빨간색이나 파란색 등 사용 금지)
2. 답안지 수정 시에는 지우개(연필, 샤프 사용 시)를 사용하거나, 가로로 줄을 긋고(볼펜 사용 시) 그 위에 재작성 하시오.(수정테이프, 수정액 사용 불가)
3. 본 고사의 답안은 1매 이내에 작성을 해야 하며, 답안지 교체는 가능하나 기존 답안지 제출은 절대 불가합니다.
4. 답안지 교체로 인한 책임(시간 부족 등)은 요청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5.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1) 답안을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기를 한 경우
  - 3)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 4)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경우

※ 감독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가>

사회·문화 현상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탐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태도,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 먼저, 객관적 태도란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이나 선입관을 배제하고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실 그대로를 관찰하는 태도를 말한다. 연구자는 특정 사회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습득하였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가치와 규범을 가진 사회나 집단을 연구할 때 연구 대상에 대한 편견을 가지기 쉽다. 또한, 연구자 자신이 가지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 역시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성, 연령, 종교, 인종, 사회적 지위 등과 관련된 특정 가치가 연구 과정에 개입되지 않도록 제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사회·문화 현상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게 있음을 인정하는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개방적 태도는 특정 이론을 무조건 추종하거나 배격하지 않으며, 어떤 주장이라도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 검증될 때까지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또한, 자신의 이론이나 주장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와 함께 연구자는 상대주의적 태도를 지녀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현상은 본질적으로 가치 함축적이기 때문에 같은 현상일 지라도 그것이 지니는 의미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고기의 식용이 종종 논란을 야기한 것은 개에게 부여된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대상이 속한 역사적 특수성 및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연구 대상에 접근하려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나>

‘탐험하고 정복한다’는 근대의 사고방식은 세계지도의 발전에서 잘 나타난다. 근대 이전에도 수많은 문화권에서 세계 지도를 그렸다. 단언하건대, 그 중 어느 것도 세계 전체를 정말로 알고 그린 것은 없었다. 아프리카아시아에서 아메리카를 알았던 문화는 없었으며, 아메리카에서도 아프리카아시아를 알지 못했다. 낯선 지역은 그냥 빼버리거나 상상 속의 괴물이나 불가사의로 멋대로 채워놓았다. 이런 지도에는 빈 공간이 없었다. 이런 지도들은 세계 전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15~16세기에 유럽인들은 빈 공간이 많은 세계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유럽인의 제국주의 욕구뿐 아니라 과학적 사고방식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빈 지도는 심리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비약적인 진전이었다. 유럽인들이 자신들이 세계의 많은 부분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랬다. 중대한 전환점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동아시아를 향한 새 항로를 찾기 위해서 스페인을 떠나 서쪽으로 항해하기 시작한 1492년에 왔다. 콜럼버스는 여전히 과거의 ‘완전한’ 세계지도를 믿고 있었다. 그런 지도를 이용한 콜럼버스의 계산에 따르면, 일본은 스페인에서 7천 킬로미터 서쪽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사실 동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거리는 2만 킬로미터가 넘으며, 중간에는 완전한 미지의 대륙이 가로막고 있었다.

<다>

방송이나 신문 보도를 보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모습을 화면 가득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갑을 차고 고개를 푹 숙인 건장한 아저씨들이 굴비 엮이듯 줄줄이 끌려 들어오는 장면과 함께 이들에게서 압수했다는 야구 방망이, 식칼 등을 보여 주는 방식이죠. 그러나 이런 장면들은 대부분 “형사 피고인의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결과물들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의 근본을 뒤흔든 놀라운 발상의 전환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근대 헌법에 수용되기 이전에는 일단 범인으로 혐의를 뒤집어쓰면 누구든지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원님 또는 종교 재판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고문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 정신을 이어 받아 피의자 피고인의 유죄 입증 책임을 국가에 넘긴 위대한 선언입니다. 잘못된 형사 절차가 만들어 낸 역사 속의 수많은 희생자들에게 바치는 진혼곡이자,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켜 내는 최소한의 안전판이기도 합니다. 검사가 판사에게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강력한 유죄 확신을 심어 주지 못하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지침들도 모두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라>

일전에 나는 모자에 다리미질을 하려고 어느 모자 가게에 들어갔다. 그 모자는 비바람에 날아서 털이 부하게 일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새것처럼 번들거리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광내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모자 장수는 자기가 정말 흥미를 갖는 문제 - 즉 모자와 머리의 문제에 대하여 내게 얘기를 꺼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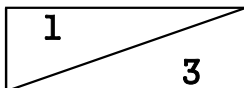
“머리의 모양이나 크기에는 놀랄 만한 차이가 있습니다. 손님의 머리는 소위 보통 머리입니다. 제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하고, 내 보통의 얼굴에 언뜻 실망의 빛이 어리는 것을 보았던지 그는 덧붙였다.

“이런 뜻입니다. 손님의 머리가 비정상인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머리에 따라서는 - 자, 저기 있는 저 모자를 보십시오. 저것은 머리가 아주 우습게 생긴 분의 모자입니다. 길고, 폭이 좁고, 후투성이의 - 아주 비정상적인 머리입니다. 그리고 크기로 말하면, 참 놀랄 만큼 차이가 심합니다. 저희는 변호사들과 거래가 많습디다만, 그분들의 머리 크기는 놀랄 지경입니다. 손님도 놀라실 겁니다. 아마 그분들의 머리가 그렇게 커지는 것은 생각할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 모자는 OO씨(유명한 변호사의 이름을 대면서)의 것인데요, 엄청나게 큰 머입니다. 7인치 반, 이것이 그분의 치수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7인치 이상 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머리 크기는 직업에 따르는 듯합니다. 제가 전에는 항구 도시에 있었는데, 그때 많은 선장님들 일을 해 드렸지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분들 머리는. 아마 그건 그분들의 걱정과 근심 때문이겠지요. 조수며, 바람이며, 빙산이며,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시니…….”

[문제1] 제시문 <가>를 읽고 제시문 <나>, <다>, <라>의 사례에서 결여된 과학적 탐구태도를 각각 지적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500자, 40점)

[뒷면에 계속]



## &lt;가&gt;

로크: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 즉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모두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모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증재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이 없어 자연권의 보장이 불안정했지요. 인간은 이러한 불안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일부 위탁하는 계약을 맺고 정치 공동체를 결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공적인 가공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스펜서: 저는 국가라는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한다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생물 유기체는 수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지만, 그렇다고 이 유기체가 세포들로 환원될 수는 없지요. 사회도 개인을 세포로 하는 생물 유기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더욱 잘 이해하려면 생물 유기체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발전의 논리를 사회의 발전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생물 유기체의 각 기관은 전체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며, 생물 유기체의 소멸은 필연적으로 각 기관, 혹은 부분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은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하며 개인의 사고와 행위는 사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lt;나&gt;

인간의 협력 네트워크는 대개 자체적인 잣대를 통해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자체 평가 점수는 당연히 높다. 특히 신, 국가, 기업 같은 상상의 실체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인간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상상의 실체의 관점에서 성공을 평가한다. 종교는 신의 계명을 글자 그대로 따르면 성공이고, 국가는 국익을 높이면 성공이고, 기업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다.

그러므로 인간 네트워크의 역사를 검토할 때는, 이따금 멈춰서 실제하는 실체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어떤 실체가 실제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아주 간단하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해보면 된다. 제우스의 사원을 불태워도 제우스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은행이 파산해도 은행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해도 그 나라가 실제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경우 고통은 단지 은유이다, 반면 병사가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면 그는 실제로 고통을 느낀다. 굶주린 농부는 먹을 것이 전혀 없을 때 고통을 느낀다. 갓 태어난 송아지와 떼어놓으면 어미 소는 고통을 느낀다. 이런 경우 고통은 실체다.

물론 허구에 대한 믿음도 고통을 초래할 것이다. 예컨대 국가적 신화나 종교적 신화에 대한 믿음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과 신체의 일부는 물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전쟁의 원인은 허구지만 고통은 백 퍼센트 실체한다. 우리가 허구와 실체를 구별하려고 노력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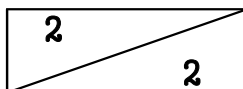
허구가 나쁜 것이 아니다. 허구는 꼭 필요하다. 돈, 국가, 기업 같은 허구적 실체에 대한 널리 통용되는 이야기가 없다면 복잡한 인간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똑같은 허구적 규칙들을 모두가 믿지 않으면 축구 경기는 할 수 없고, 허구 없이는 시장과 법원의 이점을 누릴 수 없다. 하지만 이야기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이야기가 목표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단지 허구임을 잊을 때 우리는 실제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되며, 그때 우리는 ‘기업을 위해 많은 돈을 벌려고’ 또는 ‘국익을 보호하려고’ 전쟁을 시작한다. 기업, 돈, 국가는 우리의 상상에만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라고 그것을 발명했다. 그런데 왜 그것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희생해야 하는가?

## &lt;다&gt;

2015년 7월 15일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레바논에서 탈출한 팔레스타인 난민 소녀와 만났다. 소녀의 가족은 독일에 망명을 요청했지만 곧 추방될 처지였다. 소녀 ‘림’은 메르켈에게 유창한 독일어로 “남들은 인생을 즐길 수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없는 것이 정말 힘들다. 앞날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메르켈 총리는 “정치는 어려운 일”이라고 대답한 뒤, 레바논에는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있는데 독일이 그 사람들을 전부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림은 이 대답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메르켈 총리는 절망한 소녀의 등을 쓰다듬었으나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격양된 여론은 냉정하고 무감각하다고 메르켈을 비난했다. 비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메르켈은 방침을 바꾸어 림과 그 가족의 망명을 허가했다. 이후 몇 달 동안 메르켈은 문을 더 활짝 열어 수십만 명의 난민을 독일로 불러들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메르켈이 감상주의에 빠져 단호하게 처신하지 못한다는 공격이 쏟아졌다. 많은 독일인 부모들이 메르켈의 방향 전환 때문에 자기 자식들의 삶의 척도가 떨어질 것이고, 어쩌면 이슬람화가 확산되어 자식들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왜 자유주의의 가치를 믿지도 않는 생면부지의 남을 돕기 위해 내 가족의 부와 평화를 걸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④ 난민들의 절망과 독일인들의 불안이 충돌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2] 제시문 <가>의 로크와 스펜서의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시문 <나>의 주장을 지지 혹은 비판하고, 그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서 자신이 독일총리라면 밑줄 친 ④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지 논하시오.(800자, 60점)



이 면은 여백입니다.